



박 병필 선생

원명 - 박 니가노르 예빌리아노위치.

1906년 11월 5일에 원동변강 수청구역 신명동에서 박근만의 5남으로 탄생하였다. 박선생의 소년시대인 1915-1923년 경에는 어지대에서 고려인 애국자들의 단체들이 많이 활동하여 그 애국단체들의 영향은 박선생에게도 많이 미치게 되었다. 그 애국자들 중 정재관, 무덕순, 유동화, 조동섭, 조응순, 김응열, 김인세, 박정격 등 원동에서 유명한 애국자들은 종종 만나 보기도 하고 그들의 신부림도 많이 하였다. 그들에게서 애국열사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며, 자기도 때가 되면 그런 영웅적 위훈을 한번 발휘해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1920년대 초기에 원동에 잠입하였던 일본군대는 그곳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한하여 조선에서와 같이 가진 악행을 감행하면서 3.1만세 사건에 참가자들과 항일 단체 참가자들을 걸러 추방하였다. 이를 위하여 많은 한인 청년들은 미신을

집을 떠나 만주나 시베리로 가서 새로 조직된 공산군²
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22년에는 일본 칩락군은
노련군에게 완전히 패망당하고 원동으로 불어 철퇴하
게 되었다. 그 후 1925년에 원동 블라지보스토크에 한인
로동학생이 조직되었던바 박선생은 수형구역 모범 청년
사업활동가로써 그 학원에 파견받아 1929년에 그 학
원을 졸업한 후적으로 필하인 원동으로 떠나 타슈켄트
교대 수물리에 입학하였다. 타슈켄트에서 3년간 공부
하는 사이에는 타슈켄트 인민위원회내에 조직된 고려인
학생지대에서 처음에는 열성자로 일년간 단니다가 다음
그 학생지대의 책임자로 일하였다. 그 당시 타슈켄트 근
방 주로 상철칙 구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주로 채소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의 총인원은 불과 50명도 초과 하
지 않았다. 1932년에 교대를 타간한 박선생은 다시 지
기 교향 원동에 돌아가 시명동 중학교에서 물리수학
선생으로 1937년, 원동으로부터 한인들의 전반적 어
태까지 열성적으로, 이 강제 이유로 인하여 박선생은
이리 청년시기에 와서 공부할 사람이 많이 늘어나 단니타 타슈
켄트에 도착하여 상철칙, 및 중철칙 구역들에 도교육부의
파견을 받아 단니타에서 계속 중학교 등에서 교육 사업을 진행
하였다.

1946년 말에 우르베코 공화국, 교육성의 명령에 따라,
타슈켄트 사대에 열린 교원특별강습소에서 반년 동안
공부하고 북한에 노어교원으로 파견되었다. 1947년 7월
에 북한에 도착한 박선생은 당중앙위원회 대남사업부
가 지르하는 대남공작원 강습소에서 교원으로 일하였다. 1949년
6월 부터 1952년 6월까지 대남사업부 직속 특수산업과장으

로 일하였던 (특수 산업이란 대남공작대를 무장화기 위한
 군부품 산업, 1952년 8월부터 1957년 6월까지 당중앙위원
 회 대남사업부 직속 강동학원 (대남공작원 학교) 원장으로
 계시다가 1957년 초순부터 사상검토(초순부터) 중풍에 걸렸다.
 박병을 선생에게 허술잡고 실토하라고 다진 것은 - 공화
 국을 반대하여 로동당 중앙을 반대하는 어떤 지르기를 허가하
 와 박병을에게서 받았는데, 왜 남한 공작대 나앉아 전혀
 파한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왜 남한 공작대 원들은 남한에 나가
 1년 전부터 북한을 변절하고 전향하여 지하공작 사업에서 활약하
 여 나오는가? 어찌하여 북한군의 남한을 점령하였을지 남한 연변
 은 폭풍을 일으켜 북한을 지지하지 않았는가? 박병을과, 이흥영의
 와 어떤 비밀 연락이 있었는가? 등 질문으로 변절한 동안
 깊은 심문하였으나 - 불행한 박성생에게서는 북명을 반대하고 긴
 일생을 반미할 어떠한 비극한 반란 재능도 발견되지 않아
 그를 강동학원장 직부에서 철거하여 부산성 경리부장 직부
 에 돌리었다. 당시 북한이 화장은 벌써 사상검토에 걸렸다가 불행
 사하니, 하급직부에 실려온 나쁜 간부는 아무런 당적 정치적 가치
 도 없는 중등 나등급 대우에 돌리려 어느 보습에 가서던지
 원대를 받고 있었다. 박성생을 1957년 7월에 강동 학교에서
 나온 후 불어는 어디서던지 특대권을 받았는데, 종종 열시 당하든
 일도 있었으나 그래도 귀중한 조국의 흥일은 막아 버렸다고 생
 각하고 있었으나 소련파에 대한 열시의 공조는 말이 갈수록
 더 감히여지고 있었다. 이 뒤 끝까지 1959년 중순에 이르러
 당 중앙 위원회 간부들은 박성생 여러 농촌 협동조합에 내
 려가 한 2년간 고생하네된 다음 선생의 일을 관리하게
 해 줄 생각이 들것이라고 말해였다. 그러나 박성생은 일생에
 농촌 일이라고는 전혀 해본 일도 없고, 또 대학을 나온 아들

딸들을 데리고 농촌에 내려가서는 무슨 일을 하겠으며, 여지
 자기 남은 씨름에 들고 있는 농도원에서 정회적으로 다시 노생한
 다 하여로 크게 해볼대로 하오나, 또 어디까지 5-6년 전부터
 허복에 내려보내사 란은 많으나 관대한 처리를 받고 다시 위로
 들은 아 온 사 람은 농이름은 아 들 뿐더러, 그 끝에 내려가 다시 허
 벌 처단을 받고 곧 동당 열성분자 들에 싸여 죽은 일은 기승복이었
 다. 때때로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북한에 파견한 노련에
 돌아가고 그 노동당 앞집어들어 무 쫓길어 때 농집게 노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양전한 생활이네, 정신상 위급도 뒤회하
 고 언정 하프, 소련정부가 공립권 회복과 귀환을 허가 하라 들
 것을 요청 하였다. 소련정부는 이에 동의하고 입국 허가 공을
 평양까지 소련대사관에 발송 하였다. 귀국은 조현정부에서 드
 허가 하였으나 소련에 돌아오는 여비는 무지 않고 자기비용으로
 가라고 하였다. 박성생은 절박한 열금생활을 하다보니 여비는
 전혀 없었다. 하도수 없어 전체 가족의 여유 의복들을 다 팔아 갔고
 평양 장마당에 나가 팔게 하여 겨우 여비를 마련 하여 모스크
 코바까지 무사히 도착 하였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후 소련공산
 당과, 외무성의 방조로 임시사행도 파견 하였다. 아이들의
 공부도 시 성원들의 취직을 도와 해결 받도록, 약 2개월 후에는
 국가 해택에 의하여 모스크바 중앙에 4칸드리 사행까지
 무리로 받게 되었다. 박성생은 장기간 당기관 교육기관에서
 일 하였다. 마리악 시기에 대남사업 기흥으로 내무성
 관리하여 속하는 계열에서 일 하였다. 그 후에 소련 귀환 후
 소련 내무성 김보근에서 내무부 경비국 계통에 취직보장을 받
 게 되었다. 바 구역중 경비과장급에 1966년까지 근무 하시고
 그 후 1년노름생활이 남아 있다. 계속 1970년까지 공북교
 경비부장 직분에서 지내시었다.

박선생은 북한에 계시시 강기간 당중앙 위원회 대남사업부에서 일하셨으며, 특히는 강동학교 교장으로 강기간 계시기때문에 남한의 많은 간부들과 접촉이 많았으며, 부분적 간부들과는 말약에 남한에 가게되면 꼭 만나별라고 약속까지 하였다. 박선생의 말뜻에 의하면 자기가 강동학교에 계시시만하여도 약 3천 5백11명의 남한공작대원들을 파견하였다고 하시었다. 그들은 북한처럼 공산주의 사상 전파 사명을 받고 남한 일대 폭로 산악지대에 파견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런 산악지대라야 그들 어 무장행동을 용이하게 할수 있었으며, 각기들의 행동준칙을 쉽게 간출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리산, 설악산, 설악산 등등 북한지산부대라고 명명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들은 북한에서 출발할시 특기외 다른 접촉기대는 휴대하고 떠날수 없었지만, 그러나 양식반은 떠러날 것을 가지고 떠날수 없었다. 때문에 이들은 가는 곳마다 화전편이나 총사에서 좀 떨어져진 곳에서 살고 있는 집들에 들어가 밤으로 일어먹고, 잠도 자곤 하였다. 이들을 가르쳐 남한에서는 공비라고 부르거나 즉 공산비적이라 하였다.

1990년 8월 19일에 소련 모스크바로부터 18명의 연노환 한인들이 "소련 공훈 노인단"이란 이름으로 한국 문화방송 회사의 초청을 받고 서울에 가게 되었다. 18명중 가장 연노환분은 박병을, 한득범, 강상호 선생들이였다. 노인단은 모스크바에서 저녁에 출발하여 일본 동경 공항에 도착한후 약 2시간 휴식하고 다시 동경-서울간 미군기 비행기 부양기 747형을 타고 15°시 경에 한국 김포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이때에 소련으로부터 한인 노인단이 서울에 온다는 소문은 어디서 들었는지, 공항대합실 입구에는 수십명의 신문, 라디오 기자, 사진기자들이 기대하고 있다가 노인단 첫걸음이 평원에 도착하자 사진들을 불을 번쩍이었고

신분 라디오 기자들은 자기의 나이코를 노인들의 입이 갔다라
대고서는 어디서 오시느냐? 몇몇밖에 항공에 올라 오시느냐?
갑자기 어떠한가 등 질문들을 하였다. 노인단 성원들은 기자
들의 여러가지 질문들은 많이 받았으나 오래동안 사뭇하고
않아 거이더 잊어질정도로 아득하게 머리속에 남아 있
는 한편 처음부터 서울말씨는 더욱더 그 물음의 내용으로 리해
하기 어려웠다. 세상에 항공이후 처음 장거리 비행
에 취하여 비행기에서 내렸으나 아직도 귀에서는 비행
기 소리가 뱅뱅하고 울리고 있어 어떤 생동한 대담은 줄수
없었다. 노인들은 공황 대기할 줄지언 밤에 안락의자 노
파등이 많이 보이는데 속히 그 자리들을 찾아가 앉아 휴식
하고 싶었다. 그러나 입구 근방 약 50보 떨어진곳에는 노인단
을 조직적으로 맞이하고 간단한 영접식을 거행할 목적으로
십여명 인원이 예비 행사기, 사진기등을 세팅하고 있다. 이
노인단이 나타나자 사진들을 찍은 다음 간단한 축하들이
여섯번 노인단 일행을 대접하여 단장 겸상진 씨가 축하
하시고 문화방송회사를 대접하여 김경석 부사장이 축하
하시며, 노인단 단원중에서 가장 고령하신 박병을 선
생이 축하하시었다. 박병을 선생은 자기 축하에서 기대에 어
기게 찬란하게 번영한 나의 선조들의 땅으로 처음 밟게 되니 너
무나 값게 무행하여 눈물이 목구멍을 막아 눈조류게 말할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짜야 비로써 나에게도 이렇게 으므
가는 조류어 었다. 이것이야 나의 자랑이거, 내가 지행해
야 할 결심적, 경계적, 나아가서는 정치적 소대라는것을 연수
하게 되었다고 하시었다. 처음 김도 공황을 보게된 노인단은
이렇게 큰 공황은 난생 처음보게 되었다. 그날 공황에
나온 신분 기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서울 신분기자 들은 다

불인듯도 하였다. 후사가 끝난 다음 박병을 선생은 과거 북한에서
김일성 집권하에서 일하시었다는 것을 알고 불행을 하였는가고 뜻
은 정봉에 가서 교육사업에 복귀하였다고 하였다.

노인단은 다음 김중석 부사장의 안내에 따라 밖에서 나오자
"소년 공화국 노인단을 축하한다"라는 표어가 달린 배너에 붙어
하고 서울로 행진거리었다. 서울에 도착한 노인단은 서
울에서 "유명항포해" 호해로 18 층에 유숙할 방들로 배정
받고 약 20분간 휴식한 다음 문화중앙방송사 최창룡 사장의
초청을 받고 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할 목적으로 여의도로 행
하였다. 문화중앙방송사가 자리잡고 있는 여의도 등은 1950년
에 북한이 남침하였을 당시까지 만하여도 영등포 비행장으로
유명항포해 1년 북한 인민군은 남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
하고 서울에서 3일간 만찬 경축회를 진행한 다음 다시 항강
을 도하하고 영등포 비행장을 점령한 다음 수원으로 나가라
는 명령이 내려진 다음 영등포 비행장을 결사의 권령관으로 하여
우방은 언변군대가 여기에서 결사할 것이다. 그러나 금일에는
고층 건물들이 깔려서 관계를 어쩔 수 없게 전혀 볼 수 없게
되었다. 박선생 일행은 가장 고행하신 노인들-박병을, 한
득범, 강상호, - 세 분을 앞에 세우고 문화중앙방송사 회의실
에 도착하니, 회의실에는 벌써 백여 명의 인사들이 노인
단을 기다리고 있다가 박부로 환영하였다 기다리고 있던
관중속에는 대한 민족 강영훈 총리, 문화중앙방송사 사장
최창룡 선생, 대한 민족 통일상관 홍성철 선생들도 계시다
최창룡 선생이 축하연회 계획을 선언하자 제일 먼저 강영훈
국무총리가 마이크를 잡고 노인단을 아주 따뜻한 말남으로
열렬히 축하하였다. 선생은 아직 88 올림 팀즈가 서울에서
진행되기 전까지는 소련에 그렇게 좋은 환영을 받고 있

는지로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1988⁸년에 서울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한 다짐 우선 소련이란 나라를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한인들에게 대남연락처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때문에 문화중앙방송사는 현생님들을 초청하였다고



문화중앙방송사에서 박영을 선생은 자기의 경력에 대해 연에서 자세히 이야기 하시었다.

하시면서 이런 초청이 벌써 두번이니라고 말씀 하시었다. 강릉의 부속은 이현에 토신걸음에 한쪽은 잘 구경 하시고 소련에 돌아가 우리의 계례들에게 널리 소개 해 달라 고 하였다. 강릉리의 축사가 없으니 다음 홍성철 장관의 축사도, 또 최창룡 사장의 따뜻한 축하 편설이 있었고 노인단을 대표하여 정상권 단장과 강상호 선생의 축사가 있었다.

다뜻한 기쁨속에서 상호축사들이 끝난 다음 강영훈 국무총리는 자기 직무와 성명을 새긴 손목시계를 노인단 임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또 기타 많은 선물들을 전체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축하연설과 선물증정식이 끝난 다음 강영훈 국무총리를 위수료한 할금지로자들은 노인단 임원들과 한좌석에 앉아서 귀족식사를 하게 되었으며 이 식사과정에서 좌담회는 계속되었다. 전체 노인단 임원들은 하나도 비하짐없이 좌석에 앉은대로 차례를 내려라면서 자리의 간담회정격과 감성을 간단히 발표하였던바 할금봉신생과 박선생은 여기에서도 감사의 눈물을 감출수 없었다. 특히 박선생은 자기의 발언에서 자기는 여허해 품안 북한에서 사업할시 남한을 반대하는 수많은 간부-공작대원들을 준비하여 남한에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렇게 자신이 직접 남한에 와서 열렬한 축하를 받으려 극까지로자 고관들이 나를 만나 중의 한 좌석에서 식사까지 같이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중과 할수없었다고 하리면서 눈물로 눈물을 보냈다. 바로 이때에 좌담에 일어나 계시던 서울특별시 검사되시는분은 발언하기를 선생님! 그렇게 열성적으로 간부들을 준비하여 남한에 보내주면 우리의 당리북성원들은 그분들을 잡노라고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하자 강네에 큰 웃음소리가 들리었다. 다음 검사는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여 서울에 몇일이 있노라하면, 이전에 선생이 준비하여 파견한 별다른 간부들은 만나볼수 있을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선생은 그 검사의 말씀을 농언으로만 인정하고 들켰을 뿐이었다. 소련에서 노인단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은 서울시 각 신문들은 전면에서 코다란 돌리하여 발표하였으며 전체 노인단의 성명라 사진까지 코다랄게 게재하였다. 이후 하루가 지나자 서울에 친척이 많이 살고 있던 홍진파 선생의

(홍선생은 정복환 "새 조선" 잡지 주필이였으며, 조선에 귀환후
 조선 청년들이 중앙신문 "레닌기초"의 주필로 장기간 제했다)
 친척들이 - 사촌 형제 자매들이 약 십명이나 "꽃혜"호에
 루에 연복 찾아 오곤하였다. 또 숙인들은 자기 친척을 아
 낳^가고 찾아와 애처롭고 눈물흘리는 광경도 보았다.



사진은 박병을 선생이 서울시 검사에게 자기가 강동
 학원 원장으로 개설시 간부들을 어떻게 교양하였다는
 경험을 이야기 하고 있는 장면.

노인단 성원중에는 영노한분 강상호라고 부르는 분이 계
 셨던바 이선생을 옥촌별동행이 된다고 하시면서 찾아와
 아주 친절하게 장시간 이야기 한 결과 그가 찾은
 강상호는 그림시에도 북한에 계시는 최동건의 친척인 상
 호였다. 또 한분은 자기 부친 리영선을 모르는가 하고
 찾아와 오래동안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 하였던 바, 구이는
 찾은 여가 자기 부친이라고 하시면서 과거 신의주에서 학생
 반정부 사건을 조직한 책임을 조선에 실려가 시비리
 이 어느 지방에 계시리라고 짐작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선생은 못헤 호혜루에서 살고 있는 동안 느낀 것은 남한
 북도 하고 자유롭게 살기는 좋다고 하여도, 여기에도 진실로 평
 화롭게, 자유롭게 사는데 고생 없이 살고 있는 속 백반의 서울
 시민들 중에는 몇십년 전에 집을 떠난 아버지, 남편을 기린리
 이 밤이면 남몰래 비개 잊은 적체(적체)의 사물 어르 받고, 모래전
 에 푸근은 북도님들의 소식을 몰라 깊은 밤에 집도 어루러 못
 하고 한숨에 한숨으로 밤새는 이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울에 가서 계시는 동안 박선생에 있어서 제일 큰 사변은
 몇일 전에 서울 김사가 말하러 그 말대로 강동학교에서 준비
 하여 서울에 파견한 학생과도 반남이었다.

하루는 저녁 10시가 되자 식당에서 어제 금방 식사하고
 돌아온 박선생은 좀 일찍이 들어가서 평안히 휴식하려고 계획
 잡았다. 이것은 전종일, 한시간도 쉬사허 없어 여기, 거기 배
 쓰에 (실제) 쉬러 다니고, 또 때로는 걸어도 다니면서 좋은 것도
 많이 있고 식사 대접도 잘 받았으나 육중한 몸집을 가진 박
 선생은 매우 고달라졌다. 때문에 시간으로 보아 아직 잘 시간은
 안되었으나 그날 저녁이란 좀 일찍이 휴식하려고 상의를 용감
 벌고 벌써 침대에 누웠을 때였다. 송진파 선생하고 한 번에
 같이 계셨으나, 송선생은 열방에 둘러 나가시고 한계선이
 데에 방안에 비루라 올라왔다. 송선생은 박선생을 공중 숙히지
 말기 위하여 열대를 갖이고 나가셨는데, 이것은 틀림 없이 다른
 손님이니, 할수 없어 자리에서 일게 되었다. 물물 열고 침실
 에 손님을 들여 놓았으나 권태 기다리치^{안된} 손님이었으나, 언뜻 할 때
 에 디스가 반나절 안목이 좋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박선생은
 자리 기억을 더듬고 있는 이때에 손님을 불연간 박선생을 끌어
 아느(려) 선생님과 소리를 치면서 눈물로 흘렸다. 그 때에 아
 러리에 벗적(적)어보르는 생각에, 아 비뉘어 강동학원 제8기
 생 심이철이라는 이름까지 녹아 넣을 없었다. 박선생은 그

전쟁의 피호르인 있는시기에 최우등생 이철이를 죽였어길, 서둘
 로 작전하러 일을 생각하곤 더 다정히 끌어안고 만고 생사의
 끝에 만나서 그랬는지 잠시간 알은 듯하고. 멍하니 서있더라
 다시 알을 해먹 의자리에 앉게 되었다. 과 안부를 묻는 인사라
 중북원다음에 잔잔하게 불호르듯 흘러나오는 밤은님이 평안피
 석기고 눈물에 젖고 한숨에 석려 있다. 금 먹었다. 다시 계속되
 는 이야기는 과거에 대한 그분님의 한라디, 한라디 생활호



박 병을 선생은 서울에서 7일 동안, 항상 자기와
 같이 한방에서 침묵하는 동진과 선생과 같이 동행
 하였다. 사진에서 뒤에 앉아 담화하는 분들이 그분들이다.

각의 탄식이였다. 이윤관 박선생은 자기도 모르게 그 대화자
 의 어깨를 갖다잡고 앉아서 도저히 인간이 허락하지 않는 일
 을 한 자기의 과거를 역시 되우치고 있었다. 그때 당시 소위
 혁명, 한반도의 혁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무려 3천 5백
 명의 공작대원들을 준비하여 88선을 넘겨보내었다. 혁명을 반
 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남한연민들은 북한에서와 동일한 공작대
 원들을 자기의 혈원지 권력으로 불러 그들을 "공비"라고 부르는 이 나라

에 인공적으로 공산주의를 전파하려던 권 조권을 조속히 공산화하러다
 그때 고정신이 지금와서 생각하니 너무나도 머리속에서 번쩍
 "롯데" 호텔 18층 16호실에 앉아있는 박선생은 눈물겨운 안색
 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 참 생각만 하여도 그 당시 공산주의
 사상에 (영종 맹등한것이 너무나도 머리속고 둔한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도 북한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그 공산화 계획
 을 포기하였는가? 아니다. 아버지 당대에 소련이 무장힘으로 북한
 의 권좌에 앉어놓고 소련이 불신당면으로 그렇게 품아주고, 또
 공공이 그렇게 품아주고 하여도 자기 흥취 49년 동안에도 실천
 못한 한반도의 공산화 계획은 "하루강아지 범무렵은 잘 모른다"고
 자기 아버지에게서 소위 "최고사령관이란" 군사칭호를 넘겨 받고
유라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북한군을 최대 팽창하다 못해 소위
 내군 법까지 내며 해방포 부대들의 임무를 내각들에게 맡기고
 군물을 연마하면서 소련에서 도덕적 121일을 당한 군수기재들
 을 다량 124대 하여 끝내 들어지 만는가? 이것은 누구를 죽이려
 는 것인가? 참 생각만 하여도 기막힐 일이다

그 어느날 저녁에 "롯데" 호텔에서 박선생이 자기 제자와 '만남장'
 12일은 전체 노인단 성원들의 특권이었다. 노인단 성원중 많은분들의
 전 북한 정부의 간부들이었다. 노인단 단장-전상전씨-전북한 문화
 선전성 차관, 강상호씨 전 북한 내부성 차관, 장학봉 전 북한
 항공사령부 군사위원, 송진화씨 전 북한 "새조선" 잡지사 사장
 박병문 선생-강동학원 원장, 심수철 전 조선인민군 간부국 부국장,
 지문 전부는 다 박선생과 같은 입장에서 그 장면의 내막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나, 기타 다른 성원들은 그 내막 세계를
 알 수 없었다. 밤 늦은 38선을 넘어온 이후 40여년 간 동안에,
 30년 동안은 보편성명하고 살다가 1982년에 남한 법원기
 관 안기부에 자부하고 자기 위성행을 찾아가지고 일하면서
 산다고 그는 대답하였다. 그러나 30년간을 계속 북한을 위하여

복부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그는 대답하기를 - 자기는 20년간
 변명하고 있었으나 북한에 대한 복부는 한 5년간 하냈다고 하
 였는데, 그나마 25년간은 북한과 연락을 끊고 혼자 단념해 살
 았다고 하였다. 북한 파견원들은 자기를 변절로, 남한 안거복은
 북한 소타이로 자기를 해치게 할수있기 때문에 항상 자리를
 옮겨가며 조심스럽게 살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는 공산주의
 를 배반하고 살았다고 하였다. 그러면 서울에 강동학원 졸업
 생이 121명이나 있는가 하는 질문에 그는 대답하기를 - 121명
 있는 모양인데 정확한것은 알수없으나, 모두가 자기 모용으로
 살며, 상호간 만나다 하여도 부끄러움과 과거에 대하여 말을
 밖에서 내지 않는다. 다들 경박에 서로 못보는데, 근도 안쪽이
 없는 처하고 지나간다고 하였다. 참그 당시 공산주의 노공심에
 절망 얼마나 깊어졌을고 생각하면 부끄럽게 보내었던지, 지금 와서
 배회리리게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북한은 현재에도 지상낙원이라고 허위 선전을 계속하지만서도
 현재 각 나라 경제 문화발전 수준에서 살고있는 나라가 한번
 121지역에서 무력을 없앴다고 하여 반가라니 듣고 세계 각 나
 라에서 구제의를 받고, 자어는 조선에서 살고있는 연인들에게서
 도 구제금 이백 억불리씩 받고 있으니 참 행포전은 예상 이상으로
 난치한 모양이다. 그런데 세계 각 잘살고 있는 나라들에서
 그 나라의 사회제도의 역사발전 맥락에로 '일고, 또 다량의 백미를
 구양으로 감추어놓고 백성들을 굶게 한다느니 하는 설명으로 잘
 주려고도 하지 않고, 또 무상으로 죽리는 남한의 백미는 자기를이
 "남한 연인들이 굶어 죽는다"는 선전의 허위성을 폭로하기 때문
 에 각가지 조건부를 달아서 받지 못하고 있는 행포전이다. 벌써
 1960년대에 이르러서 북한연인들은 말하기를 조선연인은 일
 제 시대에 이렇게는 굶핍하게 살지 않았다고 하였다.

북한은 관광단원들에게 가져 "지상천국을" 보여주기 위하여 관광
 배초가 흥행하는 다섯구역 - 금강산, 백두산, 묘향산, 만경대 와
 평양의 "전승방물관" 등을 경하였으며, 외국 손님들이 지방주민들과
 만나는것을 절대 없애고 있다. 간혹 관광객중에서 북한에 살
 고 있는 친척을 만나보기위하여 가 보자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되고, 맑이악 평양을 출발 직전 공항에서 약 30분간 이라나게
 하되하 그들의 놀직한 이야기에 의하면 그들은 인간 이하의 경
 제적 환경속에서 장수도 없어서, 절반은 굶으면서 살고 있다고 비극
 동성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굶주림과
 지어지 형편에서 허덕이는 북조선 인민은 해방 될것인가?

다음날 박선생 율행은 서울 특별시 고건 시장의 초청을 받고
 시 청을 방문 하였다. 세계의 선진 경제수준을 목표물로 하고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라는 전인민적 지도 아래에서 경제기구
 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 경제 기업소들은 물론, 그와 동시에
 교육 문화기관, 체육기관,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교회들까지
 하나 더 나아가서는 과학 일꾼들과 학생들까지 한국의 힘, 한국이
 영향을 전세계 인민들 앞에서 광채나게 세워야 하며, 쓸기로운 것들
 을 만들고 있는것을 직접 보여주려 하는가? 물론 북한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 특별시는 북한 전체 인구의 반쪽 이상이며, 경제력(전
 세시 볼때에 북한 전체의 경제의 10배 이상되는 조직된 인민의
 집단을 지도하는 고건 시장에게는 소련서론 노인단에게 이야기
 하여 줄것도 너무나 많고, 또 노인단 성원들이 들었으면 하는 점도 너
 무나 많아서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것들도 줄기잡아가
 면서 간단 간단히 말씀하여 주었다.

그것은 우선 서울시의 건설과 발전방향, 그의 문화성, 위생-생
 태학적 견지에서 서울시, 도시의 의, 인민 생활의 편리성 -
 그것은 시내의 각처에 있는 장라당들과 각종 상점망의 크고 작은

각종 상점들, 시내 쓰레기들을 제때 제때에 청소하며, 건물들을 제
 때에 수리하여 항상 새 면모를 나타내게 하는 일과 길가나 지하철도
 에 풍등을 밝고 있는 거머지들이 없게 하는 문제와 지철을 포함한 시내교
 통 개선에 대한 문제, 다음 끝으로 당시 성대히 준비하고 었은 서울
 시 6 백주년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분조롭게 출라 나오는 교전
 선생의 말뜻은 그 말말이라다 우리 전체 한인들의 자량이 여
 념원이며, 열려있는 금지간어였다. 박영을 선생 열형은 서울시
 청에서 많은 선물들을 받아 받고 다시 베버스에 앉아 항상 서울로
 끌어 받고 세 의의를 최들고 그 음장하면서도 기력있는 자태를
 보이고 있는 그야말로 산철의 강산의 자량인 삼각산은 오름쪽
 으로 보며 북쪽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박선생은 복잡한 자기 생각에
 사투의 기드의 설명을 듣지 못했었다. 베버스는 응수신을 한눈에 달리
 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수있었다. 고층 건물들이 저두에서 압력을가하
 고 그리에 그리를 불고 달리는 각종 자동차들의 무리속에서 용행
 해방된 베버스는 한결 몸을 자유롭게 위는듯이 (자유롭게) 푸른바다
 북판으로 유혹스럽게 다가진 심장으로 소리없이 미끄러져 달리고
 있는 순간에 좌우편에 새파랗게 자라 붙어있는 천남성의 피들은
 바라보^{박선생은}는 또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그것은 북판에 있어서 큰 길역에
 놓여 있는 이런 개끗한 비의 발을 반듯이 김일성 (영웅 협동조합이나, 또
 백전 백방의 천리나 협동조합이도 하는 포말들이 도로 좌우에 촘촘
 이 박혀 있어 승객들의 어목을 끌제하고 있으나, 여기는 왜 타투런
 풍어군, 풍말도 없는데 비들이 저렇게 무성할까? 그리고 여기의 농
 민의 집은 벼밭이 단벽 필까지 차지하는가 하면 마당은 15-20
 평 정도의 면적만 남기였으며, 자동차가 달리고 었은길로 바로
 도로 옆선까지 보바^스바^스하게 차지한것을 볼때 이곳 농민들은
 이 평방미터이 두지를 자기 집방안의 분들 면적과도 같
 이 소중한 여기이 각 영은 것은 사실이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12대 평방 미터의 땅이 가을에 가서 죽어도 1 걸로 그 땅의
살을 주렁가, 또는 5-6 달러를 죽기 때 놓는다. 그러면 북한 농민은
왜 그러지 않는가? 북한 농민은 공동경제에서 한 평방 미터의 땅을 더
가꾸어 5 달러의 리득을 더 내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차혜지는 리득은
일천도 아니리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동경제에서는 자기의 노력에 따
란 리득점이 낮은 것으로 일할하려는 욕심이 없는 관계이다. 노인단은
어느덧 벌써 월로방이 가로막고 있는 38선 파죽을 노재지 임진각 앞
과당에 도착하였다. 아직 38선 경비군 안내 군관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서 노인단은 파죽군 책임자들끼리 허가를 받고 최창익으로 써 반
내다 보면 근처 농민들의 집에 돌아다니며 보게 되었다.

농민들의 집들은 밤마다 흥겨운 가락들로서 가득차 있었더라,
정주간에는 밥질은 전기 자동로질 가마로 부쳐 시작하여 장독, 간장독
쌀독, 고추냉이 절구독, 고춧가루독 등 십여개가 놓여 있는가 하면 온돌독,
한겨울에 놓여 있는 가구장에는 각종 크고 작은 식기들로 가득차 있었
다. 안방은 어룡방, 아이들방이 따로 있고 아늑함은 우리함으로 들여다
보이는 의복장과 침구장에도 의복과 침구들이 가득차 있었다. 집안에는
가구들과 의복들이 어찌저찌 많이 걸여 있고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저도 알았다. 좁다란 마당에는 자가용 승용차 한대 혹은 2대씩
서고 있었고 또 걸레는 공간이 있었더라 그 비록에는 여러가지
잡곡들을 넣은 가사들이 줄줄이 놓여 있는가 하면 밖에는 말리
운 미역, 고사리, 해를 치어 말려온가지, 시래기, 말리운 땀겨리 가지 등
여럿 있었다. 북방을 현생은 이런 살림사리는 50여년전에 한인들
이 소련 원동지방에서 살기 시작한 때에 본 이복 다시는 보지 못하
였다 북한에서 12년간 살았으나 이렇게 사람답하게 보복하
게 사는 살림사리는 볼수 없었다. 북한이 농민은 형언할수 없이
어렵게 살고 있기때문에 어떤 관광단이나 농민회 집을 볼수있게
조직하였다. 그리고 보통 농민들과의 만남을 절대 거절한다.

북한이 관광단의 비버스 쿨스는 고정불변한 방향 - 만경대,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평양 전용기념관 등이다. 때문에 어떤 협동조합이나 공장 같은 것은 아무리 신형하여도 볼 수 없다. 우연한 경우에, 관광단이 가는 도중에 두 개로 인하여 다리가 파괴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농가에 들어가 본 밑을 만 한 몇 분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떠났다면, 대충로 걸어 놓여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회심도 하고 찬물도 우리하여 대강 전회 장을 하여 놓았으나 집안에 들어가면 형형빈 빈방에 다 떨어졌 이 불이나 2-3 개 개여 놓은 것 이외에 아무것도, 입헌의 복도 남 두 할 것 어 몇 천지 길에 있을 뿐 새 의복이나 새 이복 라 리는 전 혀 없고, 우선 그걸을 놓아 둔 의복장이나 피작도 없으니, 정주방에는 쌀독이 한 그릇에 잡곡이 몇 되 있을 뿐 광독 이고 최후장독, 간장독 같은 것은 전혀 없었으니, 곡간이 한 것은 전혀 없으나, 밭이면 그 안에는 한 호리 강대기 외 지곡 분 타진 삶이나, 각 쟁이가 전처져 있을 뿐이라곤 하였었다. 이런 형편에서 손님들 못마지 할 것은 별편 할 줄이며, 북한은 관광성원중에서 친척관의 만남을 요청하여도 다만 비 행기가 떠나볼 시간을 할 시간이나, 반시간을 여유로 두고 공황에서 면회를 허가하며, 선물은 접수케 한다.

박선생은 이번 노인단 성원으로 남한에 와 보고서는 남북한 의 정반대적 면인 경제 수준을 해명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가 지 형제에서 발생한 것 이다. 즉 개인 소유냐, 그렇지 아니면 공동 소유냐 하는 문제다. 박선생은 제후하여 북한이 후지 개혁을 회상 하였다. 처음에는 남의 땅을 억지로 나라 몰 수 하여 개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어느 정도 수 축고도 높이고, 소출에 따라 얼마의 리돈을 보게 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협동화하면서 개인소유를 명명 열살 식히 공동소유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 연민의 구원이호치를 경작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몽땅 호지소유권을 상실한 농촌정리 품타리 권이 되어버렸다. 이때로부터 농촌 농지의 단 일면적에 소출이 저하되고 국가의 공출량은 높아지고 연민들은 굶고 수백에 없겠는가? 사람이란 땅 위에서 태어나고, 땅의 전을 재밌고 땅으로 도라가는 법이라, 땅을 버린 사람들에겐 무엇을 바라보려는가? 그 땅을 버린 사람은 일천만에 넘는 연민들은 지금 남한에 나와 다시 땅을 가꾸고 있지 않는가? 참, 북한은 땅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마직 38선 경비부에 특별 호송부의 기관들이 쓰지 않으면 잠을 리용하여 박선생 일행은 바로 철주방 길에 북한에서 철났는데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가족들의 힘으로 세워 놓은 "망배단"이란 비석을 보게 되었으니, 38선 철주방 때문에 기차라 통행하지 못하여 철도는 죽발이 되고 그와 병행이 그 길에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을 볼어 복잡하게 사람들이 밟고 다니던 원로도 뚝전강 지류를 건너놓은 인도교까지 북과 판북이 투성하여 관광단원들의 눈을 거슬리게 하여 철도는 마음씨 잠기게 하였다.

"망배단" - 두고운 선조들의 산에, 러나러 북한을 바라보러 의제의 배려를 물리는 상"이란 말이다. 1천만에 넘는 이산가족들중 많은 분들은 두고운 선조들이 산에 가서 양끝을 절할수 없어 이 비석 앞 돌상위에서 제사지내며 울고 돌아가는 여절 길은 비석에서 많은 사람들은 일년에 2-3번은 꼭 왔다가 간다고 한다. 어디가나 한민들은 인자하고 여절 길은 동방의 여의지국이란 말이 딱 맞는 4라의 사람이다. 박병을 형생은 원래 마음이 다주 어지러, 각각이 여절 할 노연으로써 여기에서 눈물을 참지 못하였다.

박선생의 일행 - 노인단은 다시 배어쓰 불라 인하여, 그 비록 한황무지가 20끼로, 50리 쪽으로 버림받 - 갈밭이 된것을 애우의 생각내며, 언제나 어 38선이 멀리있는가 하는것을생각하는 동안 벌써 판문점에 도착하였다. 판문점에 도착한 박선생은 12년 동안이나 옥수를 내걸고 조국건설에 성의성을 다하는 정신으로 그로동당과 김일성의 지시에 맹종맹종하던 정든 북한, 정든 평양을, 저북쪽에 었으리라고 인정하고 발 뒤축을 놓아듣디면서 쳐다보이려 한질에 눈을 끼웠다. 박선생은 북한에서 할수있는 것만, 그 북한만은, 그 백성들은 언제나 빛을보았다. 시리의 시각이라-도 김일성 가족의 독재가 물러진다면, 발을 벗고서라도 풀달음쳐 달아갈 사람이다. 노인단 일행중에는 과거 1954-1956년경에 조종축 우석 대포로 권전단 판을 지도하던 전북한 비무성 처관 강삼호 중장도 있었다. 강선생은 자기가 여기에서 우석 대포로 일 할시작했을 무렵엔 비상 사고들에 대한 노인 단원들에게 이야기 하여주면서 저 회의실 중앙에 놓인 큰상위에 너 다 잘게 줄어 지내간것은 바로 38선이라고 하면서, 회의 때면 북한 대포는 항상 저상 북쪽에 었고, 미국 대포는 법적으로 상 남쪽에 었다고 하면서 북쪽에 놓여있는 중앙부의 회견 의자를 가르치며 자기가 그 의자를 12년 동안 차지하고 었었다고 하였다. 노인단 일행은 정전단 판 회의장에서 나와 경희 쪽은 북쪽 언덕위에 었는데 잠깐내게 짊어 놓은 판문각도 보고 부장하고 경희 의무를 수행하는 북한이 연변군 하전사관들도 가깝은 거리에서 맞으보았던라 그들은 노인단 일행을 상담하리있는 눈초리로 뺨치게 훑어 보았다. 박선생 일행은 경원 협정 회의 서쪽편 재 높은 고지에 올라가 개성, 태극 쪽을 향하여 북한이 한들과 멀리 나을 프레 보이는 정지들과 농가들로

바라보며 흥일 제복을 가지고 각각 자기 의견들을 설명하였다. 21.
일행은 여기로 붙어 출발하여 서울로 돌아가는 도중 서울 주변에
포착하라 문화공방방송사 부사장 김중석씨의 의견에 의하여 서울의
보신항 집에 रु게 되었다. 박선생은 서울의 보신항 중의 과정을 자세히
보면서 노원시 보신항, 평양시 보신항, 함경도시 보신항 등에 대하여
김부사 장게 설명하였다. 그것은 평양시 보신항은, 향이 아니라 고추장은
풀고 그린 국물이며, 고기는 칼로 썰어서 국물에 넣어 먹으며, 함경도
나, 노원시 보신항은, 진자 고기향, 고기가 살이 날 때 까지 살이
서 태워를 다추려낸 다음, 고기를 밥국으로 잘 붓는다음, 그것을 불가죽
으로 해서 국그릇에 담고 그 다음 기름진 국물을 그 위에 적당한
정도로 부어준다음 하였다. 그 위에 간, 허태, 갈비등을 가지고 개장회
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것을 찜맛 좋은 술안주라고 설명하였다. 그
런데 서울의 보신항은 물고기만 따로 썰어서 양념장장에 찍어
서 술안주로 먹고 다음 순전한 고기국물을 밥에 비벼 먹으며 먹는
것이였다. 누구던 자기 그 향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 처럼 자기
그 향식의 식사가 제일이라고 할것은 부단할수 없는 일이다.
노원단은 이것으로 저녁식사를 셋째 두고 이 자리에서 떠나
이산가족 협회 대표단이 기다리고 있는 회의실로 가게 되었다.
남한에 살고있는 이산가족 협회도 그 부서들이 북한의 행정구역
회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도별을 남한에서 임명하는 도지사들이
있다고 한다. 노원단은 이산가족 대표들과 만남에서 이산가족성원
들이 남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어떤 형편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
을 알게 되었다. 박선생은 북한에 계시는 가족과 고향에 계시는 이
한집 친척처럼 지내던 가족이 꼭 남한에 월남하였으랴라고
짐작하고 해당도시 책상들과 담화하여 그 가족의 력사를
알게 되었다. 그 들은 월남하지 못하고 혼에 내로각 운동
당 열성자들에게 매 맞으며 고생 뒤끝에 잘 못 되었다고 하였다.

22.

노인단 성원들중 이질 북한 출신분들은 각자들어 자기가 잘알고
 있던 분들의 소식이나 알려고 노력하였으나 그것을 알수없었으
 니라, 이상가족도 현재 북한의 소식은 잘모르고 지낸다고 하였다.
 기타 다른 성원들은 여산가족이란 무엇인지, 무엇때문에 고향을 떠나
 남한에왔는지 잘 모르리때문에 그들의 내막세계를 흥미있게 들었다.
 이들은 단화과정에서 끝이 다음 여산가족들은 호지나, 집이나
 모든 가정생활까지 복능이라는 명목하에서 몰수당하고 현재 남
 한에 와있으나 임시로 살아가는 행편은 남시는 대로 살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에 떨어져 계시는 부모 친척들이 그림어 할창
 꿈에도 고향생각을 하고 있으리 또 어떤 분들은 산업이나 상업에 종사
 하리면서 나 부럽지 않게 살고 있으리 외국 여행을 종종 하고 있다
 고 하였다. 박선생이 혼자 생각으로 내린 결론은, 자기고향, 친애
 하는 부모 형제들을 리별하고 할수없어 도망쳐와 사는 처형에서
 서 어렵고난끝에 꾸준한 노력의 대가로 살기는 북한에 있
 을 때보다 잘살고 있으나 만약에 자기가 살던 고향의 법도
 여기와 같은 법이건 사회환경이 여기와 같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일까, 기본 생의 진리가 달라서 현재 여기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에서 살고있을것이라곤 생각하였다.

박선생은 어렵게 생각함으로서 자기 현재의 선세를 이상가
 족의 행편에 대조하여 보기도 하였다. 자기는 고향을 일제놈들에게
 빼앗기고 러시아로 망명한 한인, 흥행고향생각을 하면서, 고향
 산원의 정신, 한인들의 생활양식, 한인의 얼을 가슴깊이 품기고
 자식들에게 평행으로 복권만의 아들, 이를헤면 러시아의 한인
 2세로서 일제의 태함과 조선의 해방을 세상에 떠났는 행복
 으로 인정하고 북한에 갈리와 무려 12년간 살면서 나라를 꾸려,
 거기서 늙어 죽으리곤 결심한 것을 반당, 반인민분자로 낙인하고
 쓰련에 추방되리면서 자기여비를 잘사는 나라에 가라고 하였으니
 고 얼마나 비인간적이고도 비도덕적인 나라 정책인가?

3만 5천리 길을 아무런 가지지 못하고 이날 형편에서 자기여비로 가라화였으나 무엇이나 다 팔아 차표들을 데려가지고 6명 식구가 8일간 반쯤 굶어대면서 모스크바에까지 도착하였어 28선을 열경행하여 남한에 나온 여반가족이나 대충 소어하였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다음에는 소련 정부의 방주로 식량을 배정받고 직업도 선택하여 주었으며, 아이들은 계속 학교에 다니게 된것이다. 박선생은 그 당시 소련에서 그렇게 접수하여 주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고생하였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여 그 점도 동양을 떠날시, 그 잔인 무르한 노동당과 김일성을 얼마나 원망하였던가? 아마 그날 리덕에 노인단을 접대하여준 전체 대표들도 현재까지도, 또 자기 고향에 귀환하기 전까지는 언제까지 원망하리라고 생각하면서 따뜻한 연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박선생 일행-노인단은 다음날 비바스를 타고 조선반도리가 강 남항구, 대한민국의 두번째 도시, 부산항으로 향로를 잡게 되었다. 일행이 몸을 실은 ~~비바스~~ 특별비바스는 서울-부산간 고속도로로, 늦게라도 배를 타고 1만경향화 물로가르고 앞으로 내달리는것처럼 부드럽게 의자를 흔들어서 승객들에게 잠을 방해하였으나 처음은 고속도로 차량으로구나라 남항을 주경하고 있는 노인단은 아름답게 단장한 남한의 풍경, 높고 낮은 지형상에 바다보이는 크고 작은 농촌들과 장엄하게 일떠선 현대 새공업도시들이 현달아 줄지어 갖가지로 시야를 제압하는 관계로 눈감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비바스는 당일경 경주시까지 도착하였던바 이도시로 옛날에 조선백제 나라의 수도였다고 기드는 설명하였다. 이도시에서 가장 으뜸가는 "골목" 호텔루에 박선생 일행은 자리잡게 되었으며 호텔은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지행에 놓여있었다. 호텔 후면에는 아주 아름답게 생긴 큰 연못이 있는가하니깐, 그 우에는 칠푼, 화렵, 혼성림으로 조성된 큰공원으로 호텔을 둘러싸우려런 방 남쪽에는 놀다란 큰산이 보여 이 지방은 항상 화들어 업호하고 있는듯도 하였다.

한니엘의 이야기에 의하면 백제나라는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으나
 로서, 고구려 나라에게 패망당한후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문화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다. 노인단은 이후 할아버지
 아주 평안히 늙어갔다고 그 이듬날 아침에는 복안으로 향하도길
 에 포항 제철에 정거하여, 포항 조선소, "현대 자동차 공장등을
 구경하였다. 포항 제철은 세계 52개 나라들에서 원료를 실어다
 가 쇠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의 연간 생산량은 일본 산성공장의
 그 수준에 접근하여 대로는 그를 능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공장
 에서 생산되는 철판은 이어 포항 조선소에 넘어가 큰 배를 만든데적
 용되며, 또 일부 고급 철판들은 "현대" 자동차 공장에 넘어가 인민생활
 에 가장 필요한 용구까지 모델리 자동차 생산에 기본적으로 리
 용된다 하려면 이외에도 기차 화물 및 여객 차량 제조, 지어는 각
 공 건물들이 집성라 가정의 냉장고 생산에까지 자리 불을불고 있
 다고 기사장은 설명하였다. 현대 자동차 공장에서 백선생은 공
 동자들의 생활 보장 형편에 대하여 답화하면서, 노동자들이 12월
 얼마씩 받거나, 주택보장은 어떻게 풍당 되는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
 들이 12월 자기를 능력에 따라서 120-180만원까지 받는다 하였고. 주
 택은 생산에 참가 연한에 따라 임대-임차제로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노인단 일행은 자동차 생산과정을 주조, 단조, 조립 및 도색
 가공 기술행정을 구경할 수 없었던바 콰베아의 길다란 행정에는
 조절공 몇몇명만이 시위를 빼고 모든 가공 행정은 자동화 라인
 비스듬히 열려 있었다 특별히 건강에 유해로운 공정, 도색공정은
 전혀, 완전한 자동화 되어서 도색 카메라에 들어가는것이 보이고, 다,
 도색이 끝나고 완전히 건조된 차체가 나오므로 이제 다른 기술공정은
 총 12명 나오는데 조립품들은 순차적으로 레자리에 붙어 바퀴까지
 달아놓으니 완제품이 되어 콰베아 끝에 나가서는 자기 절은 주
 으러 나가는데였다. 이 공장에서 자동차의 총 생산량은 1년에

30-40 만대가 된다고 하였다. 노인단 일행은 공장에서 나오길²⁵에 중앙 과학기술 설계부에 기간 동안 12월 12일였다.

현재 과학기술 수준의 날날이 빠른 데 시간마다 앞질러가고 있는 산업의 흐름의 대양에서 금일에 신모형을 생산에 도입하면서 일년이후에 그를 대신할 새모형을 벌써 실험장에서 시험하기 하고서는 그 생산기업들은 앞으로 발전의 확실성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서 공장 총기사는 중앙 과학기술 설계부에 대하여 그의 유래와 역사, 현재 활약하고 있는 범위에 대하여 이야기할 다음 신형 모델 차들로 실험하는 실험장에 나가서 노인단 일행은 자자들의 소견을 허허에 실어 단나면서 실험 시설들과 그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 하여 주어 노인들은 흥미있게 들었다.

노인단은 공장 지도자들이 권위하여 온 - 고급 유리-수령에 다 공장의 마크를 새긴 값진 선물들을 감사히 받아가지고 다음 부산을 행하게 되었다. 노인단은 부산에서 일리로 떠나는 물고기항, 물고기 회도 기쁨에 구름 물고기 정함 물고기로 대접받아 그날 부산에서 많은 전시는 일행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게 되었다. 노인단은 점심이 끝난 다음 부산항에 나가 관란한 수도임선 뒤에 쉴터와 항해하는 것을 멀리 길게 바라 보았지만 너무나 초현에서 온 노인단을 보는데 라는 듯이 하였다. 그러나 박병을 성심 일행은 의의 길은 부산의 말바다, 허구본 어리러가 아들과, 내산같이 일년 남편을 떠나는 안해, 말남이 행복할 꿈을 꾸던 처녀가 자기의 실랑으로 할수없는 길로 보아면서 울린 눈물들은 부산항의 바다를 얼마나 더 보아야 족한지 더더는 이들의 한숨을 얼마나 자아냈던가? 아, 쓸쓸하련 그 옛날, 확실성은 없어으나, 그러나 어떤 날, 적의만한 희망이라도 품고 눈물겨운 이 부산항을 떠났고 떠난 이들, 영영 돌아오지도 못한 백이등포 12월 12일 어나 되느냐? 아, 아! 험난 길은 부산항아! 좀 알려주어 다구. 아니다 어저리

그 분이라? 조선인민의 원수, 일본 제국주의는 이 항구를 통하여
 조선의 자원을, 조선 인민의 재산을 자라듯처럼 수탈하여 갔
 으며, 전쟁 시기에는 청년들은 군대에 혹은 로동대원으로, 처녀들은 동
 원하여 일본놈의 군대를 위한 처남대로 보내었으며, 무엇이 조선의 것이
 라고 있었는가? 나라의 독립은 있었을지 재물이나 물질적 자원까지
 전부다 일본놈 들어 들어 쥐고 차지 유지 하였지. 그러나, 죽으나 사나 우선
 자기 나라가 있어야 된단 말아야. 하고 박헌영을 선생은 혀를 차며 다
 시한번 두루먹을 들어 쥐려 볼까지 유시 좋았었다. 박 선생은 계속하며
 생각하기를 노연단이 여기까지, 한반도 앞이까지 끝까지 오게 되겠도
 오늘 우리 한인들이 자기 나라가 있는 땅이라든지 다시 한 번
 다짐되려, 한인들이 어디서 살던간 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받들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는 복수여하로 반하여 리다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부산 알바다, 부산항을 내다보았다. 박 선생 일행은 그후 부산 시가지에
 일러선 현대형 대건물들과 기업체들, 각종 상사 회사 등을 훑어
 하고 부산 시가를 벗어나 고속 자동차 길에 나서게 되었다. 고속으로
 미끄러져 달리고 있는 현대식 고급버스에 몸을 실은 노연단 일행
 은 그럴게도 역사 깊은 전설적인 부산시를 임시에 도착하여 점
 심 식사끝하고, 말하고 꽃구경하듯이 불어 두시간 동안 지체 없이
 그를 리별하고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쉬웠다. 참, 부산시는
 과거에는 불쌍한 한인들의 피눈물의 역사에 짐부되어 있었다면, 문
 제로 불어 해방된 오늘날은 세계 경제 발전 궤도에 밀려
 게 올라와서 1900년 ~~1900~~ 1900년에는 세계의 십일번외
 부국의 나라가 될 수대를 닦고 유흥치는 경제 성장으로 유명
 하여 자존심 높여 세계를 행하여 걸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는가?
 참 이걸이 한국인들의 거름이며,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책이라
 언정해야 할지이다. 차 양에 설치된 라디오로 불어 잔잔하고
 부드럽게 흘러 나오는 한인들의 행곡은, 소련 적언에 자기 성격
 가 제몸에 더 잘맞게 나르려라곤, 귀를 통하여 온몸에 갖다

들어 심장을 12-저국인 사잇근이라, 정답게 기쁘고 있는 잠을 잊고 연달
 아 계속되는 다음 노래가 그전전보다 더 재치가 있어 눈감로누었었다
 박병을 선생 일행은 남한에 도착한 5일동안 보고, 듣고, 먹고 산
 모든 것을 총괄하여 보아서 자기들이 소련에서 상상하고 있던 그
 우월의 한계를 훨씬 능가한, 이것이 한인들의 생활 질 보습이고
 한인 생활의 진미라고 결론하면서 한인으로서, 레나라, 레캉에서
 살고 있는것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였다. 노인단 일행은 생각하기
 를 우리는 비교적 레나라에서 살고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레나라 즉
 한인나라 문덕으로 북한에 화남에서 살면서 또 자리선조들의
 고향에 와 볼수있지 않았는가? 작! 이, 얼마나 장엄하고
 감동한 일인가?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만하의 먹혜 없었지, 우리
 들을 누가 생각하여주고 감춰주었는가? 소련 원동에서 살다가
 무라와 같이 화북지역에 살기 좋아하여에 갈때, 무슨 연생의가
 치가 있었는가? 때문에, 이번 소련 노인단에 대한 관광조각은
 한 입으로 다 풀어 할수 없는 대한 민족 정복의 배려이고, 문화공민
 (배려의심) 반응희사의 배려의심을 소련 권체 한인들에게 명백하게
 알리운 동시에, 한인들에게는 어떤 나라가 있다는것을 ~~꼭~~ 꼭꼭히
 알려야 되겠고 노인단 전원은 생각하였다.

노인단을 실은 고속버스는 어찌나 바빠서 팔십칠년래 벌써
 저녁 8시에 서울에 도착하여 휴식하고 그 이튿날은 6월 25일
 - 동쪽 상쟁이 개시된 45주년이었다. 노인단 일행은 국영 불지에
 도착하여 남한에서는 어떻게 여부에 후모회를 진행하는가를 알
 제리였는데, 노인단 일행은 소련의 대풍로 함단 앞에 접근
 하여 분행하고 북사로 돌아가신 이들에게 인사를 돌리었다
 노인단은 이 국립묘지에서 얼마나 많은 한인에게 묻혀들어 국
 내에서 또는 해외에서이 건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위다.
 세상 떠나고 어찌하여 안치 되었는가를 알게 되었다. 안치

되어 있는 애국 열사들의 묘지들 중에는 노련 구슬몰르다 공동
 묘지에 한장되어 있는 동법도 잠곡의 묘지로 있었다. 안내원의 설
 명에 의하면 애국 열사 부분적 분들은 조국의 해방 전에 하
 행에서 별세하여 그 자리에서 안치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그들
 전부를 서울 국립묘지에 옮겨올 예정이다. 현재 여기에는 그분들의
 상경 묘지가 자리를 잡히고 있었다. 노인단은 모퉁이 연천철원
 방향을 향하여 38선에 접근한다음 철교방을 앞에 두고 중일
 시대 어남에서 연인들의 조영화와 안전을 위하여 하고 있는 한국 연
 함부대 "백골부대"로 남침시에 가장 강력한 저항을 기하리면서
 인민군에게 막대한 손실을 준, 그야 말, 그대로 "백골부대"
 에 초침받아가 짐짓 식사도 같이 하리라 명함부대 사단장,
 이사단은 다른 사단보다 한급 높은 사단으로서 명함부대장은
 남의 막 4에 되어 보이는 병풍한 공장이었다. 사단장의 말
 씬에 의하면, 사단은 38 분계선을 유지하는 부대들로써 북한
 이 배신적으로 6.25 때와 같이 침범 할시에는 첫 희생물로 될우
 있는부대라 하리면서, 자기 관하부대들은 어떠한 공격도 목적으로
 안기때문에 장갑 탱크 부대나 기동부대들은 배속되어 있
 지 않다고 하면서 조선 반도의 평화를 연천하리면서 휴전분계
 선의 안전을 유지할부대라고 하였다. 그 반면에 북한은 어후
 전 분계선에서 멀리지 않은 곳에 기동명함부대들을 배치하고 있
 는가하리면서 세련은 공크레트 강벽 밑으로 산혈을 다와서 뒷골에
 동행동 이 혼혈을 쥐고 그를 용라하여 대기계화 부대들은 리
 용하여 또다시 남한의 점령을 꿈꾸고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때문
 에 자기들은 북침은 절대로 목적으로 안으나 기동성 있는 방어를
 위하여 일부분로 쉬지 않고 사병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노인단은 38 휴전 계선까지 가던 도는 길에서 세로운 들녘을
 자랑하고 있는 농지들과 보리밭과 아깝하게 꾸러 놓은 농가들을

영국 바라 본에서 서울 이남이나 서울 어북도 똑같이 한가지로
 과유불급 평화로운 생활의 보람이 윤택으로 같은 농촌에서, 도시에서
 한가지로 즐기롭게 살게 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줄 없었다.
 노련에서 내로한 노인단은 바로 그날 저녁에 문화중앙방송
 회사 사람 최창봉 선생이 마련하여준 농협 연회에서 회사 전
 체 성원들의 각별한 화려한 회관에서 남한에서도 알지 못하는
 동료 같이 지내었지만 섭섭한 장미분위기로 감출수 없었다. 장
 내에서는 서로 연호장도 주고 주소도 써주면서 노련의 도시까지
 1년 꼭 정화제로 하시고 집에 찾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서로 따
 뜻한 약속을 각별한 약속을 하면서 헤어졌다.

6월 26 일날 아침, 바로 노련으로 출발하는 날이었다.
 여러 지역까지 그렇게 좋은 날씨가 병행되며 어슬쩍 잔잔
 히 북풍이 있었다. 남씨는 똑같이도 박병을 선생이 서울과
 각별한 약속을 틀어서 눈을 흘리듯 보였다. 사실 노인단이
 (한 일행이) 한바버스가 한강다리를 건너서 라지오로 물러오는
 데로, 그에 보조 맞게 물을 댈게주는 일로 노인단의 많은 분들의
 눈물을 북돋아주게 하였었다, 그중 다 대우분들은 대한민국의
 행복에 의하여 이루어진 첫번이라 많이 막 행복의 시각
 이라는 것을 애석하게 여기며 떠날 때였다.

박병을 선생은 이 후에도, 1991년에 이전에 북한에서 사임
 할시 담공에서 같이 일하던, 최후 강릉학원 출신 제자의 초청을
 받아 일본 동경 구경도 하시고, 1993년에는 남한에서 산업
 분야에서 많이 활약하시는 이전 북한 친구의 초청을 받아
 약 1개월이나 휴식하는 동안 경주시에서 열지 않게 있는
 뒤서 깊은 불국사에 가서 선조들의 눈치에서 제사까지
 지내시었다고 하시었다. 박선생은 그 당시엔 80 세도 넘어
 서진 연노환 분이였으나 하루 등장이 빈번한 건강 분이였다.

박병을 선생은 1991년 평월에 모스크바에서 조직된
중국 민주통일 구국 전선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그의 공
임 10인위원으로 선거 되어 현재까지도 모스크바지
역에서 진행 조직되고 있는 구국전선 사업에는 한 번도 미하
지 않아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1년에는 노련의 려사에서 처음으로 노련 과학
아카데미에 특별원사로서, 구국전선 총고문으로 계시는 허진선
생의 창의 주선에 의하여 모스크바 시에 한인 학교가 개교 되었다.
박병을 선생은 이 학교에 종종 나가 학생들과 교직원
들과 만나 정기간 자기의 생활에서 체험한 경험담을
하여 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어 주군 한다.



노련에서 오신 노인단이 부산에 도착하여 점심식사
를 하고 있는 장면. 박병을 선생은 중심부에 앉았다.

1995년 10월 25일 광복절.